

제17회 신·재생에너지 워크숍 및 2005 신·재생에너지학회 추계 학술대회 개최

산업자원부(장관 이회범)는 11월 11일 서울대학교 공학관에서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신·재생에너지학회 주관으로 『제17회 신·재생에너지 워크숍』 및 『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성과와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는 본 행사는 신·재생에너지분야별 연구개발성과 및 학술논문 발표, 해외전문가 초청강연, 전시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산·학·연 각계에서 연구중사자, 대학교수, 학생, 산업계 대표, 지자체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가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원별 주요품목 실물과 모형태양광 자동차 경주대회 및 태양광 건축설계전 입선작, 태양광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및 시민단체 우수포스터 등을 전시하여 학생, 일반인 등의 인식 향상에 기여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및 고유가 상황 등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업체간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관련 산업발전 및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협의체” 공식 출범

11.17, 울란바타르 선언문 채택

11월 16일 - 17일 2일간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동북아 6개국(한국, 일본, 중국, 몽고, 러시아, 북한)의 에너지협력 정부간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1st Session of the Senior Officials Committee on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가 UN/ESCAP주관으로 개최되어, 정부간협의체로 국장급의 고위급위원회(SOC : Senior Officials Committee)와 산하 실무그룹

(W/G)을 설치키로 하고, SOC와 W/G의 운영안 및 향후 활동계획에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울란바타르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동북아에너지협력 정부간협의체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동 협의체는 동북아지역의 에너지 안보 등 에너지 관련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UN/ESCAP의 지원하에 우리나라(산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주도로 추진되어 이번에 합의, 결성된 것으로 앞으로 역내 에너지 관련 정보공유, 시설투자 및 교역 확대 등 다양한 에너지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수석대표 주봉현 산자부 자원정책심의관)를 비롯한 러시아, 몽골, 북한 등 4개국 정부 고위당국자 및 일본, 중국의 에너지전문가와 IEA, ADB 및 ASEAN Centre for Energy(ACE) 등 국제기구 관계자, 그리고 미국이 옵저버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제1차 SOC)에서 한국이 실무그룹(W/G) 의장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연구기관으로 지명됨에 따라 우리나라 주도하에 역내 에너지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며, 각국 에너지시장 현황, 공급상황 및 투자계획 등 역내 국가간 정보공유가 우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역내 국가 중 주요 산유국인 러시아와 주요 소비국인 한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은 역내 인프라(Trans-boundary 등) 구축 및 관련 에너지시장 협력에 상호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협의체는 앞으로 새로운 지역에너지 협력의 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제경쟁입찰에 의한 원전기술 최초 수출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2호기 안전성분석 용역수주,
미국·영국 등 제쳐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이종재)은 2005년 9월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가 발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2호기 안전성 분석

수행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미국 Washington(사), 영국 NNC(사)와 캐나다 AECL(사) 등 세계 유수의 원전 기술업체와 경쟁한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어 지난 11월 18일 루마니아 원자력공사와 용역수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금번 용역은 체르나보다 원전2호기의 핵심설비인 원전연료 취급계통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하는 고도의 원전기술로서 우리나라가 원전해외사업을 추진한 이래 국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수주한 최초의 계약으로 우리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입증된 쾌거(快舉)로서 그 의미가 크다.

루마니아는 1970년대말 월성원전과 동일노형인 캐나다형 중수로 원전 5기를 체르나보다 지역에서 동시 착공하였으나 '91년 재원조달문제로 1호기만 '96년말 준공, 현재 상업운전 중이다. 2호기는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으로부터 차관을 제공받아 '00년초 공사를 재개하여 약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3~5호기의 공사재개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월성원전건설 및 운영경험을 토대로 체르나보다 3호기 공사재개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루마니아 원자력공사, 캐나다 AECL(사), 이태리 Ansaldo(사) 등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공동 수행하고 있다. 특히 루마니아측은 우리나라 원전기술 및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05. 10월 바세스쿠 대통령 내한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체르나보다 3호기의 공사재개 사업에 한수원의 참여를 적극 요청하는 등 사업진출 전망이 매우 밝다.

한국남동발전(주), 국내 최초 클링커 제거 신기술 적용 설명회 개최

한국남동발전(주) 발전처는 11월 21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클링커 제거신기술 적용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기술본부장을 비롯한 발전처장, 발전 5개사 및 삼천포화력, 영흥화력, 영동화력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내 최초로 적용

되는 클링커 제거 신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남동발전은 국내 최초로 영흥화력과 영동화력에 유연탄 클링커 방지제 및 물분사 방식의 클링커 제거설비(Water Lance Blower)를 운영중에 있으며, 보일러 연소장해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유연탄 클링커 방지제는 보일러 노안에서 생성되는 클링커를 연질화시켜 부착을 방지하는 약품이고, Water Lance Blower는 생성된 클링커를 물과 접촉 후 팽창되어 탈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중전에는 운전 중 클링커 발생시 발전기를 정지하고 제거하였으나, 최신 기술 도입으로 운전 중에도 클링커를 제거할 수 있는 운영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석탄보일러의 가장 큰 문제점인 석탄회의 연소장해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향후 발전 원가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동서발전(주), 해외사업 인재양성 나서 제2회 해외사업 리더요원 세미나 개최

한국동서발전(주)가 해외전력시장을 개척할 인재양성에 나섰다.

동서발전은 지난 11월 23일 본사 세미나실에서 경영진과 해외사업 진출을 맡은 사업 풀(Pool) 요원과 전문가 스폰서(Sponsor) 요원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해외사업 리더요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서발전은 이번 세미나가 사내 글로벌 리더그룹을 발굴하고 해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동서발전 우종천 기술본부장의 인사말로 시작, '필리핀 발전사업 동향'과 '기업가치 평가 방안 및 사례'라는 주제로 한전 해외사업처와 맥쿼리(Macquarie)사의 강의, 동서발전 해외사업 요원들의 가상프로젝트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우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배양하는 핵심은 바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라며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과 해외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동서발전은 세계적인 동해화력의 유동 증보일러설비 등 해외사업 진출 가능한 설비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발전회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해 해외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총 25명의 해외사업 리더요원을 선발한 바 있으며 해외사업 현장체험 등 다각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주), 중장기 환경경영전략 수립 2차 중간발표회 개최

한국중부발전(주) 발전처는 지난 11월 17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403호에서 발전처 박광식 팀장 및 에코프론티어 정해봉 사장을 비롯한 본사 및 사업소 T/F팀원, 에코프론티어 담당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환경경영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2차 중간발표회 및 세부실천계획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2차 중간발표회에서는 에코프론티어 송인경 팀장의 200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수행했던 경영환경분석, 선진기업 벤치마킹, SWOT분석 및 GAP분석 발표가 있었고, 뒤이어 삼성전자의 녹색경영 사례발표 및 중장기 환경경영전략 마스터플랜 세부실천 계획을 위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번 중장기 환경경영전략 수립 연구용역은 교토의정서 발효와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 제정 및 대기오염 총량제 시행 등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정책연구 과제로 채택되어 추진 중이다.

중부발전은 환경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환경회계제도 도입하는 등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한국능률협회주관 2005년도 녹색경영 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한 환경회계시스템 구축 등 ECO 2010 이라는 중장기 환경계획에 이어 향후 2015년 환경경영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중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남부발전(주),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등록

한국남부발전(주)은 지난 11월 17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을 완료하였다.

ESCO 사업은 제3의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 에너지시설의 보안을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대신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게 된다.

남부발전은 이번 ESCO사업 등록으로 국가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에너지전문기업으로의 도약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신기술 및 고효율 기기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용하는 등 에너지절약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설비운영 및 운전을 통해 축적된 에너지관리 노하우를 전파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남부발전은 에너지진단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내실있는 ESCO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한편, 남부발전은 지난 8월 남부발전-아주대 간 에너지부문 기술교류 및 자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하동화력본부를 대

상으로 에너지진단 활동을 공동 수행하며 에너지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다.

現代重, 고객 초청 공장 견학 및 설명회 개최

대구·경북 지역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100여명 참석,
큰 호응

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11월 17일(木)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을 초청하여 공장 견학과 세미나 등의 행사를 가졌다.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의 공장 견학에 이어 울산 현대 호텔에서 차단기, 디지털계전기, 물드변압기, 인버터 및 전동기의 각 제품별 설명회 순으로 진행된 이번 초청행사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초청받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100여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아, 제품 인지도 및 신뢰도 향상에 일조를 하였다.

현대중공업 관계자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고객 초청 행사를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하여 고객 밀착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포스코파워 창립 36주년 기념식

포스코파워는 2일 인천발전소에서 창립 36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수도권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파워는 1969년 '경인에너지개발(주)'로 출발해 올해 7월 포스코 가족이 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20년·10년 장기근속자와 모범사원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이승우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한 다과회가 열렸다.

창립기념사에서 이사장은 "지난 36년 동안 묵묵히 일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발전설비 증설에 전사 역량을 집중해 회사의 미래를 새롭게 가꿔 가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최근 포스코파워는 성장발전 마련을 위한 발전소 증설과 관련해 태스크포팀을 구성하고 발전소 증설사업에 본격 착수했으며, 11월 28일자로 강남 역삼동의 데이콤빌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변경되는 대표전화는 2087-5309번이다.

구역전기사업시대 도래, 민간사업자도 전력 직접공급 (주)케너텍, 구역전기사업자중 최초로 사업개시

구역전기사업시대 도래로 그 동안 한전이 전기공급을 독점하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민간사업자도 자기가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과거에는 한전만이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으나, 2003년 12월 전기사업법개정으로 민간사업자의 전기공급 허용됐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인 (주)케너텍은 11.24(목) 16:30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5 신동아4단지 아파트 현장에서 전기위원회 김문환 위원장 및 전력거래소 박수훈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역전기사업자중 최초로 시설을 완공하여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구역전기사업제도는 우리나라 수도권과 같이 전력생산량보다는 전력소비량이 월등히 큰 지역에서 입지한 해수,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감소,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03. 12월 전기사업법개정으로 경과기간 6월 이 지난 '04.7.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주)케너텍이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사당동 신동아4단지 아파트 등 4개 단지를 공급구역으로 하는 구역전기사업허가를 받아 발전소건설을 추진하여 왔다. 동사는 발전용량 2천kW의 설비를 갖추고 연간 1,2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총 3,650여 세대에 직접 공급하게 된다.

금번 준공식으로 해당 주민들은 과거보다 열은 30% 정도, 전기는 4% 정도 싸게 공급받게 된다.

두산중공업, 베트남 현지화 10년만의 '결실'

현지 법인 한비코, 베트남 최대 중공업체로 부상
올해 120만불 흑자 전망, 3년 연속 흑자 행진

두산중공업(사장 김대중)이 베트남 플랜트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95년 설립했던 한비코(HANBICO)사가 설립 10년만에 베트남 최대 중공업체로 부상하는 등 그 결실을 맺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11월 15일, 베트남 하이퐁시에서 베트남 도 휘 하오 산업부 차관, 썬팡스 하이퐁시장, 김의기 주베트남 한국 대사, 김대중 두산중공업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비코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비코는 지난 95년 자본금 1천만 달러에 두산중공업이 60%, 베트남 DMC사 30%, (주)쌍용이 10%를 각각 출자해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이다. 97년 완공된 대지 2만평, 건평 3천평에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임직원 600여명이 연간 1만 5천톤의 발전설비 및 산업설비 등을 생산해 베트남은 물론, 말레이시아 등 인접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고 있다.

한비코사는 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한 일감부족과 차임금 이자 부담으로 적자가 계속되어 2001년에는 자본금 60%를 잠식당하며 부채비율 300%까지 급상승함으로써 한 때 철수까지도 거론됐었다.

두산중공업은 그러나 향후 베트남 플랜트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 보고 해외 수주물량을 한비코사에 공급해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현지 밀착영업, 사업 다각화 정책 등 경영 개선노력을 전개해 왔다.

두산중공업의 이러한 노력으로 한비코는 지난 2002년 바리아 발전소에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국산화 한 열교환기와 탈수기를 성공적으로 공급해 베트남 정부로부터 최우수 품질상을 받았으며, 공기업인 베트남 석유공사에는 베트남 업체 중 유일하게 압력용기와 열교환기 공급업체로 등록되기도 했다.

경영실적도 2002년 처음으로 55만 달러의 흑자를 올렸으며 2003년 40만 달러와 2004년 83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해 3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올해 역시 지난해 보다 69% 상승된 120만 달러의 당기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한비코사를 2007년에는 현재 300만 달러의 누적적자를 완전히 해소해 부채비율을 88%로 가져가고, 170만 달러의 당기 순이익으로 베트남 최대의 중공업체로 성장시켜 나갈다는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김대중 사장은 이날 "지난 10년 동안 韓-베트남 경제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고 이제 베트남에서의 입지가 조금씩 구축되어 그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비코를 중심으로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플랜트 시장 공략을 더욱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에너지정책 관련 국제 세미나 개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매일경제신문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 후원으로, 11월 22일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국내외 에너지 관련 업계, 학계의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협약 대응 전략으로서의 집단에너지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 세미나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관심이 증대되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해외 선진국가들의 법률

적·제도적 지원 사례 등 대처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변화 등에 대하여 국내외 업계, 학계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1부에서는 온기운 매일경제논설위원의 진행으로 '기후변화 협약과 교토의정서 이행 동향'에 대하여 안영순 환경부 대기정책과장과 Erick Larsson(영국, CHPA부회장), Michael King(영국 열병합발전협회 부회장), Masaru Nagaya(일본 열공급사업협회 정책계획위원장)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집단에너지 보급정책과 시사점'이란 주제를 다룬 2부에서는 연세대 경제학과 신의순 교수의 사회로 진행으로 Robin Wiltshire(영국, IEA-DHA 회장), Robert. P. Thorton(미국 IDEA 회장),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실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3부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역난방 등 집단에너지사업의 의의와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하여 패널과 참가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LS산전, RFID사업에 본격 투자

- RFID 전문핵심인재 13명 채용, R&D, 설계, 영업기술 등 보강
- 올 초 17명이던 RFID사업부 인원이 1년 만에 50여명으로 늘어

LS산전이 신수종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RFID사업 강화를 위해 본격 투자에 나섰다.

LS산전은 최근 RFID분야 전문핵심인재 13명을 채용하여 RFID R&D, 설계, 품질, 영업기술 등을 보강하였다. 이로써 올 초 17명이던 RFID사업부 인원은 1년 만에 50여 명으로 늘어났다.

정주환 RFID사업부장은 "이 정도 규모의 RFID전문인력을 확보한 기업은 세계에서도 드물다"라고 말했다.

LS산전은 RFID전문인력 보강과 더불어 RFID태그 양산라인 구축에 본격 투자하고 있다.

지난 5월 천안에 연간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RFID 리더기 양산라인과 140평 규모의 RFID 품질시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LS산전은 올해 말까지 천안공장에 RFID태그 양산설비를 준공하여 안정화기간을 거친 후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RFID태그 양산라인은 본딩(Bonding) 공정, 라미네이팅(Laminating) 공정을 갖춘 국내 최대규모의 태그 양산라인이 될 전망이다.

정주환 RFID사업부장은 "지난 10월 LS산전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RFID 칩(Chip) 기술이전 및 상용화 개발'에 관한 기술협정을 체결하여, 칩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칩, 태그, 리더기 및 안테나까지 관련 전 아이템을 완벽히 자체 설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완벽히 갖추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LS산전은 태그 관련 설비에 대해 향후 2~3년내 약 2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